

## 세월호 사건 피해자 가족의 고통 체험에 관한 연구 : Parse의 인간되어감 연구방법을 적용

김정미\*

\*광주여자대학교 작업치료학과

### 국문초록

목적 : 본 연구는 세월호 사건으로 가족을 잃은 피해자 가족의 고통 체험에 대해 알아보고 피해자 가족의 정신적 외상에 대한 작업치료의 필요성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방법 : 세월호 사건으로 가족을 잃은 대상자 5명의 고통 체험을 확인하고자 Parse의 인간되어감 연구방법을 적용하였다. Parse의 연구 방법 패러다임에 따라 세월호 사건으로 가족을 잃은 고통 체험을 다룬 다큐 영상인 2차 자료를 선택하여 분석하였다.

결과 : 세월호 사건으로 가족을 잃은 가족의 고통 체험에 대한 세 개의 핵심구조는 1) 가족을 잃은 절망과 슬픔, 2) 일상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무력감과 죄책감, 3) 남아있는 가족을 바라보며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으로 나타났다. 구조적인 전환은 세월호 사건으로 가족을 잃은 애통함과 슬픔 속에서 압도적인 무력감을 느끼지만 회생된 가족이 세상에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현실 부인과 살아있는 가족을 보면서 버티어 나가는 과정으로 제시되었다. 개념적 통합은 가치화와 언어화를 연결-분리, 노출-은폐하면서 강화시켜 나아가는 과정으로 표현되었다.

결론 : 세월호 사건으로 가족을 잃은 피해자 가족의 고통 체험은 무기력과 절망, 우울의 감정으로 인해 삶의 의미와 목적을 잃은 상태이다. 가족들에게 의미있는 작업을 통한 중재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무너진 일상의 회복과 지역사회 참여를 향상시킬 수 있는 작업치료 중재가 필요하며 이에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주제어 : 고통, 무력감, 세월호 사건 피해자 가족, 인간되어감 연구방법, 파시

### I. 서 론

재난이란 우리 사회에서 인위적 혹은 자연적인 요인 등으로 갑작스런 위기에 접하는 상황이다. 한국에서는 1994년 성수대교 붕괴, 1995년 대구 지하철 가스폭발

사고, 1995 삼풍백화점 붕괴, 1997년 KAL 추락사고, 1999년 화성씨랜드 화재, 2003년 대구지하철참사, 2007년 서해안 기름 유출사건, 이천화재참사사건 등 인위적 재난과 2002년 이후 증대되는 태풍 ‘루사’, ‘매미’ 등의 자연재해는 많은 피해와 이에 대한 대응책에 대한 과

제를 남겼다. 우리나라의 많은 재해사건들은 막대한 인적, 물적 손실을 경험하면서도 위기상황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여전히 부족하며, 재발방지노력 역시 미흡한 실정이다(이선영, 2011). 이런 사고를 통해 가족을 잃은 고통은 자신에게 중요한 사람 및 외부 환경, 인생의 궁극적 의미와 관련된 상실, 훼손으로 경험되는 건지기 힘든 극심한 괴로움의 상태이다(강경아, 1996).

재난 피해자 유가족은 재난이 발생된 직후에 불안, 침울, 불안정, 분노, 무기력, 우울감 등을 겪게 된다(이선영, 2011). 결국 이러한 심적 변화는 재난 피해자들이 학교, 직장생활, 가족간의 건강한 관계 등으로 복귀되는 것이 어렵고 일상에 대한 균형이 흐트러지며 지역사회에 참여가 어려운 취약한 상태가 된다(김소희와 박미현, 2012).

재난 피해자들, 특히 가족을 잃은 피해자들은 상실감으로 인한 삶에 대한 무기력 및 우울 등으로 일상생활 및 지역사회에 참여가 어렵고, 삶이 붕괴되어 또 다른 고통을 받는다(이선영, 2013). 재난 피해 가족들은 갑자기 닥친 재난으로 인한 스트레스 때문에도 사망에 이르기도 하며, 재난이 지난 후에도 충격 및 우울이나 심한 정신적 장애를 겪기도 한다(김소희와 박미현, 2012). 또한 심리적 고통으로 인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PTSD) 및 급성 스트레스 장애(Acute Stress Disorder)와 같은 심한 정신적 문제를 초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지정구와 황경열, 2008).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재난으로 인하여 가족을 잃은 상실과 우울의 감정이 극대화된 재난 피해자들은 자신이 겪었던 감정들, 특히 사회적 고립의 무감각한 공황상태의 감정을 합당하게 표출하고 적절한 방법으로 표출할 수 있도록 정신보건 중재가 필요하다(이선영, 2011).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에서 재난 피해자에 대한 작업치료적 지원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엄윤정, 2014). 외국 연구의 동향을 보면, 인위 및 기술적 재난과 자연재난에 대한 작업치료 효과나 작업치료사의 역할에 관한 연구가 활발하다(Asher & Rosental, 2009; Duque, Grecia & Ching, 2013; Footie, 2003; Gretchen, 2006; Habib, Jamal & Nusral, 2013; Hoe, 2014; McColl, 2002; McDaniel, 1960; Roberts, 1995; Scaffa et al., 2006; Srivastava, David & Ramakrishnan, 2006). 자연재해가 많은 일본의 경우,

많은 지진으로 인한 재난에 대해서 정신사회적 작업치료 프로그램의 활동 참여를 통해 심리적 안정을 향상시키고 불안감소 등의 효과를 보고하고 있다(엄윤정, 2014; JAOT, 2014). McColl(2002)는 자연재난 혹은 인위 및 기술재난 중 스트레스 상황에 노출되어 있기에 이에 대한 대처 및 건강증진을 위해 작업 활동 참여를 통해 중재할 수 있다는 것을 제시하였다. Scaffa 등(2006)은 재난 중 혹은 직후 특히 작업치료사들은 피해자들의 특별한 필요에 반응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재난 직후 피해자 유가족들의 심리적 고통에 대한 것들을 심층적인 자료 분석 결과를 제시하여, 그들의 필요에 따라서 작업치료 중재 프로그램에 어떤 이해의 기초가 될 수 있을 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McColl, 2002).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재난으로 인한 가족을 잃은 상실로 절망, 일상이 무너져 내린 무기력의 감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피해자 특히, 재난으로 가족을 잃은 피해자의 다루어지지 않은 고통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재난으로 가족을 잃은 피해자의 고통이 그들의 삶의 균형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또한 재난으로 인한 외상의 정신장애에 대해 작업치료 중재의 필요성과 재난 후 외상의 문제가 있는 대상자들을 작업치료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 II. 연구 방법

### 1. Parse의 인간되어감

Parse(1987)는 의사, 간호사를 포함한 보건의료 전문가들이 자연과학에 근거한 의학모형을 따르던 접근에서 개인과 가족의 견해를 더 존중하는 인간적 접근의 치료로 변화하고자 하는 추세와 욕구를 반영하여 인간과학에 근거하고 실존적·현상학적 사고의 개념을 적용한 인간되어감(human becoming) 이론을 제시하였다(신경림, 조명옥과 양진향, 2010).

인간되어감 이론은 인간을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이루어진 부분의 합이라고 보는 자연과학의 단순한 통합적 개념과는 달리 우주 및 환경과의 상호관계를 통해서 계속하여 변화한다고 보는 동시성을 지닌 인간 패러다임의 견해를 갖고 있다(신경림 등, 2010).

실존적 현상학에 근거한 Parse의 인간 되어감의 9가지의 가정은, 인간에 대한 네 가지의 가정과 되어감에 대한 다섯 가지의 가정을 제시하였다(고명숙, 이정숙과 이옥자, 2002). 인간에 대한 네 가지의 가정은, ‘인간은 우주와 함께 율동적인 패턴을 공동으로 구성하면서 공존한다’는 것이고, ‘인간은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해 자유롭게 의미를 부여하고 결정에 대한 책임을 지는 개방적인 존재라는 것이다.’ 또한 ‘인간은 관계 형성의 패턴을 지속적으로 공동구성하는 단일체’이며, ‘인간은 가능성을 가지고 다차원적으로 초월하여 나아간다’는 것이다.

되어감에 대한 다섯 가지의 가정을 살펴보면, ‘되어감은 독특한 인간-삶-건강’이며, ‘되어감은 인간과 우주가 상호관계를 율동적으로 공동구성하는 과정이다.’ ‘되어감은 인간이 가치 우선순위와 관계하는 패턴’이며, ‘되어감은 가능성을 가지고 초월하는 상호주관적인 과정’이다. ‘되어감은 단일체인 인간존재의 나타남이다’라는 것이다(고명숙 등, 2002).

인간과 되어감의 9가지의 철학적인 가정이 인간되어감 이론의 세 가지 가정으로 다시 종합되었다(Parse, 1992). 첫 번째 가정은, 인간 되어감은 살아있는 가치 우선 순위의 상호 주관적인 과정내의 상황에서 개인적인 의미를 자유롭게 선택하는 것이다. 두 번째, 인간 되어감은 우주와 함께 상호과정에서 율동적인 관계의 패턴을 공동 창조하는 것이다. 세 번째, 인간 되어감은 나타나는 가능성을 가지고 다차원적으로 공동 초월하는 것이다(Parse, 1992; 고명숙 등, 2002)

Parse의 인간 되어감 이론은 3가지 주요개념으로 이루어져 있다. 첫째는 상상화(imaging), 가치화(valuing), 언어화(languaging)를 통한 의미(meaning) 구성이다. 둘째는 노출-은폐(revealing-concealing), 가능-제한(enabling-limiting), 연결-분리(connecting-separating)를 통하여 관계의 율동적 패턴(rhythmicity)을 나타낸다. 셋째로 초월(transcendence)은 강화성(powering), 독창성(originating), 변형성(transforming)을 갖는 과정이다(고명숙 등, 2002).

첫 번째 원리인 다차원적으로 의미를 구성한다는 것은 가치화와 상상화의 언어화를 통해서 현실을 공동 창조하는 것이다. 두 번째 원리로, 율동적인 관계패턴을 함께 공동 창조한다는 것은 노출-은폐와 가능-제한, 연결-분리의 역설적인 단일체를 살아가는 것이다.

노출-은폐는 동시에 열려있는 닫혀있는 것이다. 가능-제한은 선택하는 모든 것에는 기회-제한이 동시에 존재한다는 것이다. 연결-분리는 타인, 사고, 사물의 상황과 함께 있는 동시에 떨어져 있는 것이다. 세 번째 원리로, 여러 가지 가능성을 가지고 공동 초월한다는 것은 변형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독창성을 독특한 방식으로 강화 하는 것이다(이옥자, 이정숙, 고명숙과 노준희, 1999).

## 2. Parse의 인간되어감 연구방법

Parse는 인간되어감 이론의 존재론과 일치하는 연구 방법론을 개발하였는데, 이는 인간·우주·건강의 상호관계에서 보편적으로 존재하는 체험구조를 밝히는데 있다(고명숙 등 2002; Parse, 2001; Parse, 2007; Parse, 2011).

본 연구는 Parse의 연구방법(Parse, 2007)을 적용하여 세월호 사건으로 가족을 잃고 난 후 남은 가족이 겪게 되는 고통 체험의 구조를 밝히기 위한 현상학적이고 해석학적인 질적 연구방법을 적용하였다.

Parse의 연구방법론의 과정은 첫 번째, ‘너와 나의 관계 형성’, 두 번째 과정은 ‘추출-종합’, 세 번째로 ‘발견적 해석’을 통해 이루어진다. 최근 Parse(2011)는 연구과정 중 세 번째 ‘발견적 해석’ 과정에 ‘은유적 드러남(metaphorical emergings)’을 추가하였다.

### 1) ‘너와 나의 관계형성’

Parse는 자료 수집을 ‘너와 나의 관계 형성(dialogical engagement)’ 과정을 통해서 연구자와 참여자가 진정으로 함께 하여 경험에 대해 비구조적인 대화를 나누는 과정으로, 참여자가 현상에 대하여 서술한 내용에 초점을 두고, 모든 내용을 녹음하거나 가능한 경우, 비디오 테이프에 녹화하면서 실시한다(고명숙 등, 2002; 이상윤과 이경희, 2002). 그러나 본 연구의 자료는 60분으로 구성된 다큐 SBS 스페셜 ‘트라우마, 삼대를 쫓는다’(2014. 6. 1.) 방송의 2차 자료의 내용을 활용하였고 이를 위해 관련 매체를 제작한 관계자로부터 방송 내용을 연구의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허락을 서면으로 받았다. 또한 자료를 다운로드 받아 여러번 시청하면서 전체 내용을 직접 필사(transcript)해서 파시 연구방법에 따라 재구성하였다.

대상자의 특성 상 직접 만나기가 어려우므로 다큐멘터리에 참여했던 가족 세월호 피해 가족의 이야기 흐름을 따라가면서 피해가족이 자신의 경험에 대해 충분히 이야기하였고, 본 연구의 질문인 ‘세월호 사건으로 가족을 잃고 남은 가족의 고통 경험은 어떠한 것인가’ 대한 답을 표현하였다고 판단하였다.

Parse는 영화 쇼생크 탈출에 인간되어감 해석학적 방법론(the human becoming hermeneutic method)을 적용하여 ‘인간체험에 대한 자유란 무엇인가’에 대해 연구하였고(Parse, 2007), 뮤지컬 오즈의 마법사에서 나타난 인간의 체험으로서 지혜, 동정심, 그리고 용기란 어떠한 것인지에 대한 응답을 얻고자 인간되어감과 아동문학을 적용하였다(Baumann, 2008). 이와 같이 Parse의 방법론은 영화, 출간된 텍스트, 동화, 뮤지컬 또는 다큐멘터리로 부터 기술된 인간의 체험(lived experience)적 자료를 수집하여 연구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제시하고 있다(Baumann, 2008; Parse, 2001; Parse, 2007). 또한 인간 삶 건강에 대한 체험을 내담자가 속한 사회와 예술(비평, 미술, 사진, 그림, 연극, 영화)의 고찰을 통해 개별성, 보편성, 의미화, 그리고 역설로서 반영하였다(노춘희, 이옥자, 이정숙와 고명숙, 2007). 인간되어감 이론에 따르면 인간 삶의 변화패턴을 보여주는 다양한 매체와 문헌에서 기술된 인간의 체험적 내용을 포괄적으로 활용하여 분석할 수 있다(Parse, 2001). 다큐멘터리 역시 보편적 타당성과 신뢰성에 근거한 사실이라는 사회성을 담고 있는 장르이며, 살아 있는 예술형식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독자들이 사실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구조를 갖고 있다(다큐방송, 2010)

## 2) 추출-종합 과정

추출-종합 과정은 체험에 대한 구조를 형상화하기 위해 과학적인 언어를 사용하여 각 참여자와의 대화에서 나타난 현상에 대한 핵심 개념으로부터 이야기를 종합하는 과정이다(고명숙 등, 2002).

먼저 각 대상자의 언어로부터 관심 현상에 대한 핵심 개념을 종합하여 참여자 언어에 담겨있는 주요 내용을 추출-종합한다. 주요 내용은 대상자가 구술한 관심 현상에 대한 핵심 개념을 간결하게 표현한 것이다. 추출-종합된 주요 내용을 연구자의 언어로 종합한다(Parse, 2007; Parse, 2011). 각 대상자마다의 주요 내

용으로부터 언어-예술(language-art)을 만든다. 언어-예술은 연구자의 언어로 되어 있는 주요내용에서 핵심 개념을 종합하는 연구자에 의해 개념화된 미학적인 진술이다. 모든 대상자의 언어-예술로부터 핵심개념(core concept)을 추출-종합한다. 핵심 개념은 모든 대상자의 언어-예술의 중심 의미를 포함하여 글로 쓰여진 것이다. 마지막으로 핵심개념으로부터 체험의 구조(structure)를 종합한다. 구조는 핵심개념을 종합하는 연구자에 의해 개념화된 진술이며, 위의 과정을 통하여 진화된 구조가 연구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된다(이옥자 등, 1999; 이정숙 등, 2002; Parse, 1987; Parse, 2001; Parse, 2007; Parse, 2011).

## 3) 발견적 해석(heuristic interpretation) 과정

발견적 해석 과정은 핵심구조(연구결과)를 인간되어감의 원리로 엮어내며, 지식을 향상시키고 추후 연구를 위한 사상을 창조한다(이정숙 등, 2002; Parse, 1987; Parse, 2001; Parse, 2007; Parse, 2011). 발견적 해석은 체험의 구조를 더 높은 수준의 추상성으로 높이는 구조적 전환과 존재론을 확장하기 위해 인간되어감의 언어로 체험의 구조를 구체화시켜주는 개념적 통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은유적 드러남’은 2010년 발견적 해석 과정에 새로 추가된 방법으로 참여자에 의한 보편적 체험의 언어적 기술을 명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참여자에 의해 언급된 시적인 언어로 기술된 구절이다(Parse, 2011). 그리고 연구자는 체험의 의미를 탐색하기 위해 ‘예술적 표현(artistic expression)’을 활용할 수 있는데, ‘예술적 표현’은 시, 조각품, 그림, 음악, 은유, 활동, 사진, 비디오기록, 오디오 기록 그리고 다른 예술적 형태를 통한 연구자에 의한 개인적인 표현을 말한다(Parse, 2007; Parse, 2011). 보편적인 체험에 관한 대화로부터 참여자에 의해 표현된 은유를 추출하는 것, 그리고 인간되어감의 존재론에 비추어 그것들을 개념화하는 것은 경험에 대한 지식을 확장시킨다. 이러한 확장은 인간체험의 의미에 관한 이해와 깊이와 명확성을 향상시켜주고 새로운 빛을 던져준다.

## 3. 연구의 엄격성

본 연구에서는 연구의 엄격성을 지키기 위하여 Maxwell(1996)이 제시한 방법을 따랐다. 기술적 타당

도를 위해 TV모니터에 나타난 연구 참여자들의 행동과 말, 내러티브의 시작과 끊어짐, 다음으로 이어지는 과정의 흐름을 맥락에 맞게 가능한 정확하게 기술(녹취)하였다. 해석적 타당도를 높이기 위해 참여자의 목소리, 느낌, 표현의 조화를 이루도록 노력하면서 해석적 결과와 참여자의 삶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도록 노력하였다. 이론적 타당도를 위해서 텍스트를 SBS스페셜 제작팀에서 녹화한 세월호 피해자 가족의 고통체험에 관련된 다큐를 활용하였다. 평가적 타당도를 위해 정신보건 임상작업치료사와 대학원생들에게 읽게 하고 감동과 비판을 나누며 해석적 의미를 나누었다.

### III. 연구 결과

#### 1. 참여자의 구술에 따른 추출-종합과정

##### 1) 참여자 김

- 여, 50대, 세월호 피해자 고 박 00양의 어머니
- 참여자 김은 남편과 두 딸의 자녀를 두었으나, 세월호 사건으로 장녀를 잃었다.

##### (1) 참여자 김의 구술

- ① 마지막 순간에도 저를 안심시켰어요, 저랑 10시 12분에 통화를 마지막으로 하면서 통화 도중에 그대로 끊기면서 그냥 수장이 된 거예요, 그냥 물에 빠진 건데... 그 12분에서 15분 통화를 하면서 자기가 죽는 순간인데, 엄마...(울먹거리) 살아서 나갈 거야, 울지마, 걱정하지만, 1~2분 후면 물에 빠져서... 그런 애인데...
- ② 죽는 순간에도 부모들을 믿고, 어른들을 믿었어요, 내가 빠져나오라고 하자, 배가 가라앉는 순간에도 혼자서 움직이면 다 죽는다고... 엄마 내가 움직이면 다 같이 움직여야 하니깐 안 돼... 아...(한숨) 우리 애들이요 잘못이라면 진짜 그것밖에 없어요, 너무 들뜬 마음에 너무 즐거운 마음에 여행 가방 들고 배 탄 죄 밖에 없어요...(울먹) 세상에 엄청 죄를 지어도 살아있는 목숨을 그냥 물에 담글 만큼 그런 고문을 당할 그런 사람은 없을 거예요, 우리 애들 죄는 그 들뜬 마음에 웃으면서 간 그 죄밖에 없는데 왜 그런 애들을 고문도 그런 고문은 없을 거예요...(계속 눈물을 흘리고 닦음) 살 거라는 희망까지 줘 가면서 물에 빠뜨리는 그런 거는 흠뻑... 차라리 희망을 주지 말던가, 죽는 순간까지 희망을 주고는 그냥 물에 넣어버리는 그런 경우는...

③ 아직도 우리 아이 마지막 목소리가 딱 끊기던 전화 그 목소리가 귀에 생생해요, 4월 16일 이후로 모든 것이 바뀌어서 심장이 조여 오는 느낌 이예요.

##### (2) 참여자 김의 구술 추출

- ① 마지막 순간에도 엄마를 걱정하던 딸의 그 전화 목소리가 생생하고 딸의 죽음이 안타까워 마지막 전화를 잇을 수가 없음.
- ② 아이의 잘못은 들뜬 마음으로 세월호에 오른 죄밖에 없는데, 방송지시에 따라 어른들을 믿고 살 거란 희망을 가지고 그대로 수장되는 딸의 고통을 생각하면 심장이 조여 오는 느낌
- ③ 4월 16일 이후 세월호 사건에 묶여져 모든 삶이 멈춰버린 고통

##### (3) 연구자 종합언어

- ① 착하고 밝던 딸이 죽음의 순간 부모를 걱정하던 모습이 떠올라 안타깝고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
- ② 아무 잘못 없는 아이가 어른들의 잘못된 판단과 지시에 살 거라는 희망 속에 죽음을 맞이해야 한다는 고통과 억울함은 심장이 조여오는 참담함.
- ③ 일상생활에서 아무 것도 하지 못하고 4월 16일 이후 세월호 사건에 묶여져서 시간이 멈춰버린 무기력함의 고통

##### (4) 언어-예술

참여자 김의 세월호 사건으로 가족을 잃은 고통체험은 딸과의 마지막 전화통화가 계속 떠올라 미칠 것 같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감과 죄책감과 충격으로 인한 심리적 외상과 처참함을 느끼고 마치 시간이 멈춰지며 심장이 조여오는 고통과 같은 것이었다.

##### 2) 참여자 박

- 남, 50대, 세월호 피해자 고 박00양의 아버지
- 참여자 박은 세월호 사건으로 딸을 잃었다, 그리고 김의 남편이다.

##### (1) 참여자 박의 구술

- ① 내가 왜 한숨이 나오냐면 만약에 내가 사고가 날 수 있다고만 생각을 했다면, 사고가 나서 배가 침몰되면 갑판으로 무조건 올라오라고 이런 이야기를 해줬을 거

요, 아이가 휴대전화로 출항하기 전에 배의 내부를 보여줬을 때, 이 정도 배면 걱정하지만, 이런 배는 사고 안 나... 사고 나도 충분히 나와, 다 구조될 거야, 이런 얘기를 했던 말야, 가슴이 아픈거야, 내가 안전대비를 하나도 못 해준 거예요, 그것 때문에 애들 더 못 보내는 거지 나는...

- ② 남아 있는 동생은 언니 사진을 일부러 꺼내서 여기 저기 걸어놓고 아이가 집에서 특히 자기 혼자 있을 때 애가 많이 울어요, 샤워하러 들어가서도 울고, 언니 생각하면... 특히, 아내는 잠도 못자고, 밥을 안먹어요, 울기만 하고...
- ③ 그런 사고는 있을 수 있는데 그 후속 대책이 너무나 안이었잖아,

(2) 참여자 박의 구술 추출

- ① 딸한테 사고가 나지 않을 거라 장담해서 안전 대비를 못해준 것에 대해서 마음에 한이 되고, 희생된 딸을 편히 보내기가 힘들.
- ② 유난히 언니를 따랐던 남을 딸을 볼 때, 혼자 있거나 샤워할 때 슬피하며 우는 모습이 마음이 아픔.
- ③ 사고 난 후 그 후속 대책이 안이한 관계자들이 원망스러움.

(3) 연구자 종합언어

- ①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무력함에 너무 미안하고 사고에 대한 안전 대비를 해주지 못한 것이 계속 죄책감으로 남아 딸의 죽음을 받아들이기 힘들.
- ② 남아있는 동생과 아내가 우울과 무력감으로 일상 생활을 이어가지 못하는 것에 대해 걱정이 됨.
- ③ 세월호 침몰 후 안이한 관계자들의 대책에 원망과 실망스러움이 큼.

(4) 언어-예술

박의 세월호 사건으로 가족을 잃은 고통 체험은 딸한테 미리 사고에 대비를 해주지 못하고 안심시킨 것이 통한스럽고, 가장으로서 슬피하고 무기력에 빠진 아내와 언니를 잃은 남은 딸에 대한 걱정, 희생된 딸에 대한 미안함과 안이한 대책을 한 정부에 대한 원망이 공존한다.

3) 참여자 이

- 남, 40대 후반, 세월호 피해자 고 이00 군의 아버지
- 참여자 이는 아내와 2남의 가족이 있었으나, 세월

호 사건으로 장남을 잃었다.

(1) 참여자 이의 구술

- ① 어떻게 말이 나오지 않고, 이제 눈물조차 나오지 않아요, 어떻게 표현하기는 어렵지만 하늘이 무너진다는 표현 밖에 안 될 정도로, 아마 나쁜만이 아니고 그 곳에 있는 가족들도 다 그랬을 거예요, 사실은 제가 저를 모르겠어요, 제 감정이 지금 이렇게 무덤덤해야 맞는 건지, 어떤 지금 분노가 있던지, 절망을 느끼든지 뭐가 있어야 하는 건지, 사실 나쁘게 이야기하면 공황 상태라고 할까요? 그런 것 같더라고요,
- ② 준우를 잘 따르던 동생이 메시지에다 "형아 조금만 기다려, 곧 따라갈게" 이렇게 써 놓았더라고요, 굉장히 위험한 상태라고 하더라고요,
- ③ 또 걱정이 되는 것은 아내가 집에 혼자 있다 보니까, 혼자 있다 보면 이제 우리 아이 생각이 자주 나고 이런 부분이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아내를) 데리고 다닐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에요, 둘째 녀석이 있기 때문에...
- ④ 저도 지금은 아프다고 이런 것을 느끼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정도 수습이 되고 긴장이 풀리면 분명히 좀 아플 것 같아요,

(2) 참여자 이의 구술 추출

- ① 하늘이 무너진 듯한 마음으로, 지금은 눈물도 말도 아무것도 감정도 느낄 수 없는 공황상태
- ② 세월호 사건으로 죽은 아들을 잘 따르던 동생이 형을 따라가고 싶다는 것을 알게 된 후 불안함.
- ③ 집에서 혼자 있는 아내도 그 고통스런 생각에 힘들 것 같아 걱정이지만 살아나가야 하는 현실 속에 해결방법이 없어서 걱정과 불안함.
- ④ 현재는 아파도 아픈 것을 느끼지 못하는 긴장상태이나 긴장이 풀리면 아픔이 몰려올 듯한 불안감

(3) 연구자 종합언어

- ① 하늘이 무너지는 절망감으로 고통스러우나, 그 고통을 바라보지 않으려 눈물도 말도 감정도 부인하고 있는 공황상태
- ② 살아있는 아들은 형을 잃은 절망감과 고통을 이겨내지 못하고 형을 따라간다는 자살의도를 내보여 불안함, 집에 혼자 있는 아내도 걱정이나 어떻게 해줄 수 없어 무기력과 절망감
- ③ 현재는 현실적인 문제로 긴장 속에 고통을 부인

하고 있으나 긴장이 풀리면 아들을 잃은 고통과 슬픔이 몰려올 듯 해 고통스러움.

#### (4) 언어-예술

참여자 이의 세월호 사건으로 가족을 잃은 고통 체험은 하늘이 무너질 듯 희망을 뺏긴 상태이지만, 슬퍼할 겨를도 없이 절망 속에 있는 아내와 남은 아들을 걱정해야하고, 가장의 책임감으로 무덤덤하게 반응하는 공허함에 일상에서 감정표현도 말도 나오지 않은 고통과 절망을 부인하고 있는 상태이다.

#### 4) 참여자 장

- 여, 40대 후반, 세월호 희생자 고 이00 군 어머니
- 참여자 장은 참여자 이의 아내이다.

##### (1) 참여자 장의 구술

- ① 지금은 이렇게 말해도 믿기지가 않아요, 하나도 하나도 믿기지 않고 누가 뭐라 그래도 귀에 하나도 안 들리고요, 아이 방에 물건 하나 건들이지 않았어요, 아이가 부쩍 철이 들어서 애기 유품에서 나온 건데...(웃음) 기특하게도 엄마 아빠 알아보고 오주머니에다가 학생증까지 넣었더라고요, 우리 준우가 제일 좋아하던 사진이 영정사진이 되어 버렸어요, 수학여행 가는 날도 그렇게 말 하더라고요, 현재 여기 있는 사진 속에 얼굴이 제일 예쁘니까 엄마 이것만 기억해, 엄마 내가 보고 싶어도 이 사진만 보세요, 자꾸 저를 위로 하는 거예요,
- ② 애가 금방 울 것 같아서 항상 청소해요, 아직도 먼지 있을 까봐 청소도 해주고 저는 아직 울지 않아요, 저희 애가 "엄마" 하고 울 때까지 울지 않을 거예요(웃음),
- ③ 울면 안돼요, 제 아들한테 혼날 것 같아요, 엄마가 울면... 저는 오늘도 안 울거예요, 내일도 안 울거예요, 엄마하고 울 때까지 절대 안 울거예요,

##### (2) 참여자 장의 구술 추출

- ① 아이와의 추억, 대화, 그 의미를 기억하면서 아들의 기특하고 철이 들던 모습을 계속 떠오름.
- ② 주변사람들의 말이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고, 아이가 엄마 하고 달려올 듯해서, 절망하지 않고 아이가 살아 있는 것처럼 매일 청소하며 기다림.
- ③ 엄마가 울면 살아있는 데 왜 슬퍼하냐면서 아들이 혼낼 것 만 같음. 아들이 돌아올 거라는 희망을 끊고 싶지 않음.

#### (3) 연구자 종합언어

- ① 철들면서 잘 커가던 아들이 했던 말들을 계속 떠올리며, 아들의 옷, 방을 매일 청소하고 아들이 돌아오지 못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마음
- ② 주변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든지 인정하지 못하고, 아들의 주검을 보았으나 살아 돌아올 것 같은 희망을 놓치고 싶지 않으며, 희망을 놓치면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릴 듯한 절망감과 죽음을 인정하면 아들이 서운해 하며, 화를 낼 것 같은 현실 부인의 감정

#### (4) 언어-예술

참여자 장의 세월호 사건으로 가족을 잃은 고통 체험은 애지중지 키우는 아들의 죽음이 믿기지 않고, 아들과 있었던 추억과 말들이 계속 떠오르며, 자신이 아들의 죽음을 애통해하면 아들이 혼낼 것 같은 죄책감과, 아들이 없다는 현실을 받아들이면 모든 것이 무너져 내버릴 것 같은 절망감에 고통을 억누르고 부인하며 아들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 5) 참여자 유

- 여, 50대, 세월호 희생자 고 서00씨 부인
- 참여자 유는 세월호 사건으로 제주도 출장을 가던 남편을 잃었다. 유가족은 현재 2남 1녀의 자녀들이 있다.

##### (1) 참여자 유의 구술

- ① 잠도 못자고 밤새 들락달락 거리고 잠도 못자요, 11시 쯤 잠드는 것 같아요, 그러면 12시나 1시쯤에 일어나요, 그 때서부터 멍하니 앉아 있고, 약기운으로도 잠들지 못해요, 정신과 병원에 가도 약을 주는 데 약 먹고 잠이라도 폭 잘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 ② 아무 곳도 나가지 못하고 아무 것도 할 수 없어요, 사람들 만나서 부딪히는 것보다 혼자 있는 것이 편하니까, 정말 봐 혼자만 있도록 봐줘, 설사 죽더라도 걱정하지만, 이미 나는 죽은 거나 마찬가지야,
- ③ 그나마 아이가 있으니까 버티고 있어요, 며칠 전 아이의 펜싱경기가 있어서 처음으로 외출했어요, 아이 때문에..

##### (2) 참여자 유의 구술 추출

- ① 수면제 약기운으로도 한 두 시간 동안도 편히 잘

들 수 없는 고통

- ② 아무 것도 할 수 없고 사람들과 만나고 싶지 않은 혼자 있고 죽은 상태와도 같은 깊은 무기력과 우울감.
- ③ 남은 세 아이를 생각하며 버티고 있음. 사건 후 처음으로 아들의 펜싱경기를 보러나감.

(3) 연구자 언어

- ① 남편에 죽음에 약기운으로도 잠들 수 없는 쉬지 못하는 고통
- ② 세상과 단절하며 숨 쉬고 있어도 죽음의 상태와 같은 무기력과 깊은 절망감
- ③ 세 자녀를 위해서 힘을 내야 한다는 삶의 이유를 찾는 과정에서 첫 걸음을 시작함.

(4) 언어-예술

참여자 유의 세월호 사건으로 가족을 잃은 고통체험은 살아있어도 죽은 것과 같은 무기력과 절망감이며, 약기운으로도 잠들 수 없는 평안이 없는 고통, 다른 사람과 세상과 단절하고 혼자만 있고 싶으나 자신만 바라보는 세 자녀를 위해서 버틸 힘을 찾고 일상으로의 걸음을 하게 되는 것이다.

### 3. 핵심개념의 발견적 해석

참여자의 발견적 해석에서의 핵심개념은 첫 번째, 가족을 잃은 절망과 슬픔, 두 번째 일상이 무너지는 듯한 무기력과 죄책감, 세 번째로는 남아있는 가족들에 대한 염려와 책임감이다. 다음 표 2에 구조적 전환, 개념적 통합과 은유적 드러남, 예술적 표현으로 정리하였다.

## IV. 고찰

본 연구 결과 세월호 사건의 피해자 가족의 고통체험은 다음의 세 가지 핵심개념으로 나타났다.

- 첫째, 가족을 잃은 절망과 슬픔
- 둘째, 일상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무력감과 죄책감
- 셋째, 살아있는 가족들에 대한 염려로 절망을 버티어 가는 힘을 찾음.

세월호 사건의 피해자 가족의 고통체험의 구술내용

표 1. 언어-예술(Language-Art)

언어-예술	
참여자 김	침몰되기 전 딸과의 마지막 전화통화가 계속 떠올라 미칠 것 같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감과 죄책감과 충격으로 인한 심리적 외상과 처참함을 느끼고 마치 시간이 멈춰지며 심장이 조여오는 고통임.
참여자 박	딸한테 미리 사고에 대비를 해주지 못하고 안심시킨 것이 통한스럽고, 가장으로서 남아있는 가족들-슬퍼하고 무기력에 빠진 아내와 딸에 대한 걱정, 희생된 딸에 대한 죄책감과 안이한 대책을 한 정부의 원망이 공존함.
참여자 이	하늘이 무너질 듯 희망을 뺏긴 상태이지만, 슬퍼할 겨를도 없이 절망 속에 있는 아내와 남은 아들을 걱정해야하고, 가장의 책임감으로 무덤덤하게 반응하는 공허감에 일상에서 감정표현도 말도 나오지 않은 고통과 절망을 부인하고 있는 상태임.
참여자 장	애지중지 키우는 아들의 죽음이 믿기지 않고, 아들과 있었던 추억과 말들이 계속 떠오르며, 자신이 아들의 죽음을 애통해하면 아들이 혼낼 것 같은 죄책감과, 아들이 없다는 현실을 받아들이면 모든 것이 무너져 내버릴 것 같은 절망감에 고통을 억누르고 부인하며 아들을 기다리는 것임.
참여자 유	살아있어도 죽은 것과 같은 무기력과 절망감이며, 약기운으로도 잠들 수 없는 평안이 없는 고통, 다른 사람과 세상과 단절하고 혼자만 있고 싶으나 자신만 바라보는 세 자녀를 위해서 버틸 힘을 찾고 일상으로의 걸음을 하게 되는 것임.

표 2. 핵심개념의 발견적 해석

핵심개념	구조적 전환	개념적 통합
가족을 잃은 절망과 슬픔 일상이 무너지는 듯한 무기력과 죄책감 남아있는 가족들에 대한 염려와 책임감	비참 속에서의 절망과 애통함 압도적인 무력감 현실부인 혹은 가족들을 바라보면 버티어나감	가치화 언어화 연결-분리 노출-은폐 강화성

**구조**

세월호 사건으로 가족을 잃은 고통 체험은 가족을 잃은 절망과 슬픔 속에서 일상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 무기력과 죄책감을 느끼지만, 살아있는 가족들에 대한 염려와 책임감으로 삶의 의미를 찾는 과정이다.

**구조적 전환**

세월호 사건으로 가족을 잃은 고통 체험은 애통함과 슬픔 속에서 압도적인 무력감을 느끼지만 살아 돌아올 거라는 현실 부인과 살아있는 가족을 보면서 버티어 나가는 과정이다.

**개념적 통합**

세월호 사건으로 가족을 잃은 고통 체험은 가치화와 언어화를 연결-분리, 노출-은폐하면서 강화되어 가는 과정이다.

**은유적 드러남**

얼마나 무서웠을까? 아비규환의 현장, 살려달라고, 구해달라고, 엄마, 아빠 고향치다가 발도 동동 구르다가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헉헉... 엄마, 아빠를 부르다, 부르다... 생각할 때마다 몸서리가 친다... 아빠는 피로우면 술이라도 마시고 잠을 청하지만 엄마는 너무 힘들어...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을 한꺼번에 잃었다. 허탈과 좌절뿐이다.  
(‘천국으로 보내는 편지, 2003 중에서)

**예술적 표현**

아들아 내 딸아  
봄의 새싹 같은 내 아들아  
아직 피어보지도 못한 어린 봉우리 같은 내 딸아,  
봄을 맞아 바다에 갔거늘 따뜻한 봄을 피우려 바다에 갔거늘 어디 있느냐

어디쯤 가라앉아 있느냐 차디찬 바다 속이 싫어  
시커먼 바다 속이 무서워 하늘로 올리웠느냐

가만히 있으라는 움직임지 말라는 어른들의 말을 잘 들으려  
아직도 차가운 물속에 움크리고 있느냐

너의 젊음도 너의 꿈도 모두 뒤집혀 끝내 사라져버렸구나  
바다를 뒤집어 엎을 수만 있다면  
바다를 뒤집어 엎어 네게 다시 숨을 쉬게 해 줄수만 있다면  
내 숨을 모두 너에게 주고 싶구나  
내 몸을 녹여 통로를 만들어 줄 수만 있다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다 녹여 네가 빠져 나올 수 있는 통로가 되어 줄 수 있다면

아! 바다가 싫어 괴물처럼 시커먼 입을 벌려 너를 삼켜버린 바다가 싫어  
하늘로 가버렸다면 파란 눈을 똑똑 떨구는 하늘에 창을 내어 네 얼굴 한번만이라도 볼 수 있다면 내 가슴 찢듯 하늘을  
찢어 네 모습을 딱 한번만이라도 안아줄 수 있다면

출처 : 세월호 실종자 가족이 모여있는 체육관 정문 유리문, 희생자를 위한 추모시-2014.4.23

에서 추출한 체험의 핵심개념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찰하고자 한다.

### 핵심개념 1. 가족을 잃은 절망과 슬픔

참여자들은 재난으로 인해 예상치 않게 갑자기 가족을 잃은 상실의 절망과 슬픔, 참을 수 없는 고통 속에 있었다. 인테리어 디자이너가 되어 엄마의 집을 꾸며주겠다고 착하고 밝은 딸을 잃은 박은 세월호 사건 4월 16일 이후 삶의 모든 것이 그날로 멈춰버렸고, 그 이후에는 고통과 슬픔 속에서 지내고 있었다. 참여자 이는 미래가 창창한 애지중지 키우는 아들을 잃은 것에 절망하며, 말도, 감정도 사라진 공황상태이다. 인간의 고통 중에서 사랑하는 가족의 죽음은 가장 큰 고통이며, 특히 예기치 않은 재난으로 인한 가족의 죽음을 대비하지 못하는 가장 큰 스트레스 요인이다(Walsh & McGoldrick, 2004). 재난으로 인한 가족을 잃은 스트레스로 인해서 절망과 슬픔은 일반적인 적응의 과정이다(Cook & Oltjenbruns, 1998). 본 연구의 참여자들도 가족에 대한 가치화(valuing)가 세월호 사건으로 인한 죽음으로 가족이 연결-분리(connecting-separating)되어 적응의 과정인 절망과 슬픔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재난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공통적으로 유가족들의 슬픔이나 절망에 대해서 보고하고 있다. 1972년 미국 댐 붕괴로 인한 홍수로 125명이 사망한 재난, 2001년 9.11테러의 인위 재난으로 인해서 유가족뿐 아니라 그 인근지역주민까지도 해결되지 않은 슬픔과 가족을 잃은 우울 등의 절망을 2년 이상 지속적으로 가지고 있다고 보고하였다(Titchener & Kapp, 1976; ). 김교현과 권선중(2008)은 태안지역 기름유출 사건으로 지역 주민들은 우울, 자살생각, 불안 등의 부적응 증상을 호소하는 것을 보고하였다. 김소희와 박미연(2012)의 재난피해가족에 대한 연구에서도 사고 발생 후 가족들은 정신적 공황상태를 보였다고 보고한 결과와 일치하였다.

### 핵심개념 2. 일상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무력감과 죽은 가족에 대한 죄책감

살아남은 피해자 가족들은 세월호 사건으로 가족을 잃은 후 일상생활에 무력감을 느끼고, 사고로 가족을

잃기 전 아무 것도 해주지 못한 정부에 대한 원망과 죽어가는 가족에게 아무 것도 할 수 없었다는 무기력과 죄책감을 느끼고 있었다. 참여자 박은 세월호 사건으로 사망한 딸에게 안전사고에 대해서 주의해주지 못해 가장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못한 것이 후회되고, 안전에 대비를 일러주지 못해 딸을 사고로부터 지켜주지 못한 것에 대한 죄책감으로 딸의 죽음을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표현하였다. 참여자 장 또한 애지중지 키운 철들어 가는 아들이 세상에 없다는 것을 인정하면 무너져 내릴 듯한 고통 속에 슬퍼하면 아들이 슬퍼할 거라는 생각에 애써 현실을 부인하고 있었다. 참여자 유는 남편의 죽음으로 잠도 못자고,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과 고립감에 일상생활을 할 수 없었다. 대구 지하철 화재 사망자의 유가족의 스트레스에 대한 연구에서도 가족들은 “아침까지 피로가 남고, 일에 기력이 솟지 않는다,” “소모감, 무기력감을 느꼈다” 이런 증상의 빈도가 “자주 느낀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홍종관, 김춘경, 이수연과 최응용, 2005). 대구지하철 참사사고 피해자의 유가족 생활경험 연구에서도 가족들이 불면, 식욕부진, 의욕상실, 대인관계 회피 등을 겪으면서 ‘이렇게 살면 안되는데..’라고 되뇌이지만 현재로서는 어쩔 수 없다고 체념하고 있다고 하였고(이선영, 2011), 특히 자녀를 잃은 유가족의 경우, 사망한 피해자에 대한 그리움을 호소하면서, 상당수의 유가족들이 과거를 회상하면서 생전모습을 못 잊어하며, 생전에 잘해주지 못한 것에 아쉬워한다고 보고하여(이선영, 2011) 본 연구에 참여한 장과 이의 서술과 일치하였다.

참여자들은 가족이라는 가치화(valuing)가 재난으로 인한 죽음으로 연결-분리(connecting-separating)되어 아무것도 할 수 없이 가족을 잃어야 했던 무력감과 죄책감을 언어화(languaging)로 표현하였다. 또한 참여자 박와 이는 그들 부모로서로서의 재난 사고에 대한 안전대비를 해주지 못한 것에 대한 죄책감을 표현하였다. 참여자 이의 아들은 형의 죽음으로 인해 부정적 영향으로 자살의도를 보이기도 하였다. 이는 9.11사태와 대구참사사고 등의 인위적 재난으로 가족을 잃은 유가족들이 심리적으로 매우 심한 우울, 불안, 그리고 심리적 외상으로, 경우에 따라서는 일상생활을 지속하기 어렵고 혼란과 비탄감을 해결하지 못해 자살시도를 지속하기도 한다는 연구 결과와도 일치한다(이선영, 2011; Chen et al., 2003; Latham & Prigerson, 2004;

Mitchell, Sakraida, Kim, Bullian & Chiappetta, 2009).

### 핵심개념 3. 살아있는 가족들에 대한 염려로 절망을 버티어 가는 힘을 찾음

마지막으로 참여자들은 살아 있는 가족들에 대한 염려로 절망을 벗어나고 극복하고 싶은 힘을 얻고 싶어 하였다.

참여자 박은 가장으로서 아내와 언니를 잃은 남은 딸이 걱정되었다. 그리고 참여자 이는 고통 속에서 형을 잃은 아들이 자살의 유혹에 빠질까 걱정되었고, 집에 혼자 있는 아내가 염려되었다. 그래서 긴장 속에 고통을 느낄 여지가 없었다. 참여자 이는 가장으로서 남은 가족들이 염려되어서 슬픔을 표현할 수 없는 상태이다.

참여자 유은 남아있는 세 자녀들을 위해 절망과 무기력을 떨쳐버리고 싶었다. 아들의 펜싱경기에 응원하러 회복을 향한 첫 걸음을 하였다.

Walsh(2007)는 가족은 위기상황에 직면하여 여러 가지 스트레스에 대처 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 또한 2001. 9. 11 테러의 경험을 가진 재난 피해자 가족들은 남아있는 가족 및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지역사회 및 신앙에 의지함으로써 힘과 위로, 위안을 얻었다고 보고하였다(Walsh, 2002).

김소희와 박미현(2012)의 재난피해가족에 대한 연구에서도 재난을 당한 가족은 급속도로 해체되는 즉각적인 기간을 경험하여 방향감각을 잃고 혼돈에 빠지거나, 불확실성을 인내할 수 있는 능력을 지지하고 반응을 담아낼 수 있는 강한 구조의 확립이 필요하며, 가족구성원간의 역할과 구조에 새로운 변화를 맞이하면서 가족이 다시 안정을 찾아간다고 보고하였다. 대형재난사고 유가족의 생활경험연구를 한 이선영(2011)의 연구에서도 피해 유가족 인터뷰 결과 사고 이후 삶에 대한 기쁨과 즐거움은 멈추었지만, 그러면서도 죽은 피해자를 대신하여 나머지 가족을 위해서라도 더욱 가치있고, 의미 있게 삶을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한다는 연구 결과와 일치하였다.

### 발견적 해석에 관한 고찰

세월호 사건으로 가족의 잃은 고통체험의 구조는 가

족을 잃은 절망과 슬픔 속에서 일상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 무기력과 죄책감을 느끼지만, 살아있는 가족들에 대한 염려와 책임감으로 삶의 의미를 찾는 과정이다. 이를 구조적 전환으로 표현하면, 비참 속에서의 절망과 슬픔 속에서 압도적인 무력감을 느끼지만 살아 돌아 올 것이라는 현실 부인과 남은 가족을 보면서 버티어 나가는 과정이다. 그리고 Parse의 인간되어감 이론의 추상성 높은 개념과 존재론을 확장하기 위해 인간되어감의 언어로 체험의 구조를 구체화시켜주는 개념적 통합으로 해석하면, 세월호 사건으로 가족을 잃은 고통체험은 가치화와 언어화를 연결-분리, 노출-은폐하면서 강화되어 가는 과정이라고 하겠다.

Parse는 은유적 드러남(metaphorical emergings)을 2010년 이후 새롭게 추가된 방법으로 인간되어감 연구 방법을 제시하였다. 여기에는 참여자들의 체험에 의해서적인 언어로 기술되어진다(Parse, 2011). 따라서 본 연구의 은유적 드러남은 대구지하철 참사 피해자 가족을 애도하기 위해 쓴 시를 인용하였다. 세월호 사건의 피해자 가족의 고통체험에 관한 예술적 표현은 시(詩) 세월호 사건의 피해자 가족들을 위한 시에서 찾을 수 있었다. 가족들의 심정을 시의 형태로 표현하였다.

### 핵심개념에 관한 작업치료학적 고찰

세월호 사건과 같은 재난 피해자 가족들은 대비하지 못한 재난으로 갑작스럽게 가족을 잃게 되고 그 상실감과 충격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지 못하고 있었다. 작업치료학적 관점에서 그들은 심리적 고통으로 인한 절망과 무기력으로 인해 이전의 생활을 계속 지속하지 못하고, 일상 작업 영역 및 습관과 일과의 작업패턴이 무너져서 심리 및 정신적 외상으로 지역사회 참여의 어려움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재난 사고 후 가족을 잃은 심리적 외상은 고통 및 무기력 및 고립된 생활로 작업패턴과 지역사회 참여의 붕괴를 초래한다(Asher & Rosental, 2009; Duque, Grecia & Ching, 2013). 일상 작업의 붕괴는 건강과 생활의 모든 측면을 악화시켜 손상이나 질병을 일으킬 수 있으며, 심리적 고통 뿐 아니라 일상생활과 지역사회에서의 역할 참여가 어렵다(Habib, Jamal, & Nusral, 2013). 그러므로 재난 뿐 아니라 사고로 인한 외상 후 심리적 스트레스를 가진 대상자에게 억압된 심리적 고통을 표출하고,

일상생활에서 가치있고 의미있는 작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며, 지역사회 활동에 참여하고 사회적 지지를 통해 재난으로 인한 삶의 와해를 극복하고, 정신건강을 회복하고 지역사회 참여를 이끌어 낼 필요가 있다 (Asher & Rosental, 2009; Backman, 2004; Jonsson & Persson, 2006; Westhorp, 2003).

우리나라에서는 재난으로 인한 심리적 외상에 대한 작업치료 증재는 미비한 실정이다(엄윤정, 2014). 방글라데시와 필리핀, 일본 및 미국,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등 전 세계적으로 재난에 대한 작업치료의 중요성과 역할에 대해서 논의되고, 특히 재난 전 사고에 대한 안전교육, 작업장에 대한 환경관리 재난 시에는 자원봉사 파견 및 장애를 최소화하기 위해 컴퓨터에서 작업증재프로그램 제공, 재난 후, 회복과 심리사회적 증재를 통해 사고로 인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 하는 작업치료사의 지역사회에서의 재난에 대한 역할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다(Asher & Rosental, 2009; Duque, Grecia & Ching, 2013; Footie, 2003; Gretchen, 2006; Habib, Jamal & Nusral, 2013; Hoe, 2014; McColl, 2002; McDaniel, 1960; Roberts, 1995; Scaffa et al., 2006; Srivastava, David & Ramakrishnan, 2006)

우리나라에서도 해마다 인위 혹은 자연재난이 계속 발생하는 것에 대비하여 재난으로 인한 심리적 외상문제를 가진 대상자들에게 지역사회 작업치료의 역할이 중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가까운 일본의 경우처럼, 재난 전 재난지원센터를 협회를 통하여 별도 설립 운영하여 재난 시에 원활한 자원봉사모집 및 파견 관리, 지역사회 작업치료 프로그램 지원 등의 대책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진다(엄윤정, 2014; JAOT, 2014). 본 연구의 결과는 작업치료 분야에서 재난으로 인한 정신·심리적 외상 대상자들을 보다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고 추후 재난 후 지역사회로 복귀할 수 있는 지지를 제공하는 지역사회 기반 작업치료 증재 프로그램의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데 의의가 있다.

본 연구를 통해 연구자의 되어감(becoming) 과정을 기술하면, 참여자들에게 찾아온 재난으로 가족을 잃은 고통을 간접적으로 보고 느끼면서 그들이 체험했던 절망감, 무기력과 현실부인, 우울과 소외감 등의 고통을 함께 느낄 수 있었다. 따라서 함께 하는 가족에게 감사함을 느꼈고, 또한 고통 시에 주변 친지 및 이웃들

과 사회적 지지가 절실함을 느꼈다. 참여자 유는 다른 참여자들과 다르게 자녀가 아니라 부부관계인 남편을 잃었다. 참여자의 표현을 볼 때 일상생활을 거의 하지 못하고, 누워서 지내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사망자와의 관계별 외상 후 스트레스 분석의 결과(홍종관 등, 2005)를 제시한 연구에서는, 사망자와의 관계가 부부인 경우가 스트레스 정도가 부모자녀관계일 경우보다 더 높은 것으로 보고하였으며, 특별히 재난으로 인한 부부사별을 위한 위기상담 및 증재에 개발에 대한 제언을 하였다. 모든 참여자는 재난으로 인해 가족을 잃어 사고 당시로 시간이 멈추어지는 듯 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감 속에 살아가고 있었다. 연구자는 재난으로 인한 심리적 외상으로 고통 받고 있는 대상자들도 작업치료 증재를 통해 심리적 고통의 표출 뿐 아니라, 일상생활의 회복 및 지역사회 활동에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였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다량의 텍스트를 활용하여 본 주제와 관련된 네러티브에 초점을 두고 임의적으로 선택하였다. 따라서 결과에서 제시한 의미와 구조를 참여자에게 재확인하거나 연구자와 참여자의 되어감의 공동창조 과정이 생략되었다. 향후 연구에는 재난으로 인한 심리적 외상을 겪고 있는 대상자에 대한 작업치료 증재 효과에 대한 연구가 필요 할 것이다.

## V. 결론

본 연구의 목적은 세월호 사건의 피해자 가족의 고통 체험에 대한 본질의 의미를 밝히고 이해하고자 Parse의 인간되어감 연구방법을 적용하여 알아보았다. 본 연구의 자료는 ‘다큐 SBS스페셜 트라우마 삼대를 쫓는다(2014년 6월 1일 방송).’ 라는 자료의 텍스트를 활용하였다. 연구 질문은 ‘세월호 사건으로 가족을 잃은 후 남은 가족의 고통체험은 어떠한 것인가’ 이다.

세월호 사건으로 가족을 잃은 남은 가족의 고통체험의 핵심개념은 다음과 같다.

- 첫째, 가족을 잃은 절망과 슬픔
- 둘째, 일상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무력감과 죄책감
- 셋째, 살아있는 가족들에 대한 염려로 절망을 버텨 가는 힘을 찾음.

세월호 사건의 피해자 가족의 고통체험의 구조적 전환은 가족을 잃은 절망과 슬픔 속에서 일상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 무기력과 죄책감을 느끼지만, 살아있는 가족들에 대한 염려와 책임감으로 삶의 의미를 찾는 과정이다.

재난피해의 응급성과 피해양상의 복합성을 고려할 때, 재난피해가족이 재난이 주는 심리사회적인 도전과 여러 생활문제를 잘 극복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작업치료분야의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이 요구된다. 특히 대규모의 재해에서 가장 많이 심각하게 영향을 받지만 가장 취약한 사람들인 노인, 저소득가정, 장애인들이 가장 방치되는 현실을 고려할 때 더욱 그러하다(Habib et al, 2013). 작업치료적 관점에서는 재난피해가족의 심리적 고통으로 인해 무너진 일상생활을 볼 때, 작업적 참여를 이끌어내고 불균형의 삶의 회복하고 또한 사회적 지지와 사회적 참여가 중요하다는 점에서 재난피해가족을 위한 작업치료 중재가 매우 유용하다고 보여진다.

#### 참 고 문 헌

- 강경아. (1996). 고통 개념분석과 개발: 혼종모형 (Hybrid model)방법 적용. **대한간호학회지**, 26(2), 290-303.
- 고명숙, 이정숙, 이옥자. (2002). **인간되어감 이론(개정판)**. 서울: 현문사.
- 김교현, 권선중. (2008). 허베이 스피리트호 기름유출사고가 주민들의 심리적 건강에 미친 영향. **ECO: 환경사회학연구**, 12(1), 83-107.
- 노춘희, 이옥자, 이정숙, 고명숙. (역) (2007). **인간 되어감 이론으로 본 지역사회공동체**. 서울: 현문사.
- 김소희, 박미현. (2012). 재난피해가족의 레질리언스 강화를 위한 사회복지실천 개입전략 탐색. **사회과학연구**, 38(3), 101-122.
- 다큐방송. (2010). BBC 다크특강, 다크멘터리란 무엇인가? <http://www.daqcasting.com/3296>
- 대구문인협회. (2003). 천국으로 보내는 편지. **대구지하철참사추모문집**, 27-28.
- 신경림, 조명옥, 양진향. (2010). **질적 연구방법론**.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 엄운정. (2014). 긴급 재난/재해 상황 속 작업치료사의 대응. **대한작업치료학회보**, 59(6), 15-18.
- 이상운, 이경희. (2002). Parse의 Human becoming 연구방법론을 적용한 국내외 연구 동향 분석. **정신간호학회지**, 11(1), 43-61.
- 이선영. (2011). 대형재난사고 유가족의 생활경험 연구 -대구지하철 참사사고를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교육**, 8(1), 109-144.
- 이옥자, 이정숙, 고명숙, 노춘희. (역) (1999). **간호에 대한 새로운 조명**. 서울: 현문사.
- 지정구, 황경열. (2008). 대구 지하철 화재 사망자 유가족의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에 대한 연구. **한국동서정신과학회지**, 11(1), 97-112.
- 홍종관, 김춘경, 이수연, 최응용. (2005). 대구 지하철 화재 사망자 유가족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관한 연구. **정서·행동 장애 연구**, 21(1), 139-154.
- Asher, A., & Rosenthal, P. J. (2009) Planning emergency evaluations for students with unique needs: Role of occupational therapy. *American Journal of Occupational Therapy*, 14(21). 1-8.
- Backman, C. (2004). Occupational balance: Exploring the relationships among daily occupations and their influence on wellbeing. *Canadian Journal of Occupational Therapy*, 71(4), 202-209.
- Baumann, S. L. (2008). Wisdom, compassion, and courage in the Wizard of Oz: A human becoming hermeneutic study. *Nursing Science Quarterly*, 21(4), 322-329.
- Chen, H., Chung, H., Chen, T., Fang, L., & Chen, J. P. (2003). The Emotional Distress in a Community After the Terrorist Attack on the World Trade Center, *Community Mental Health Journal*, 39(2), 157-165.
- Cook, A. S., & Oltjenbruns, K. A. (1998). Dying and grieving: Life span and family perspectives.
- Duque, R. L., Grecia, A., & Ching, P. E. (2013). Developmental of a national occupational therapy disaster preparedness and response plan: the Phillippine experience. *WFOT Bulletin*, 68, 26-30.
- Footie, T. (2003). Disaster relief: an emerging practice area. *OT Practice*, 8(12), 18-23.
- Gretchen, V. M. (2006). Occupational Therapy in Times of Disaster. *American Journal of*

- Occupational Therapy*, 60(1), 7-8.
- Habib, M. U., Jamal, R. S., & Nusral, A. S. (2013). Occupational therapy role in disaster management in Bangladesh. *World Federation Occupational Therapy Bulletin*, 68(3), 33-37.
- Hoe, C. L. (2014). The role of occupational therapy in the recovery stage of disaster relief: A report from earthquake stricken areas in China. *Australian Occupational Therapy Journal*, 61, 28-31.
- Japanese Association of Occupational Therapists. (2014). Never to be forgotten-3 years after the Great East Japan Earthquake. *Japanese Journal of Occupational Therapy*, 24(3), 1-18.
- Jonsson, H., & Persson, D. (2006). Toward an experimental model of occupational balance: an alternative perspective on flow theory analysis. *Journal of Occupational Science*, 13(1), 62-73.
- Latham, A. E., & Prigerson, H. G. (2004). Suicidality and bereavement: complicated grief as psychiatric disorder presenting greatest risk for suicidality. *Suicide and Life-Threatening Behavior*, 34(4), 350-362.
- Maxell, J. A. (1996). *Qualitative research design: An interactive approach*. London: Sage Publication.
- McColl, M. A. (2002). Occupation in stressful times. *American Journal of Occupational Therapy*, 56, 350-353.
- McDaniel, M. L. (1960). The role of the occupational therapist in natural disaster situations. *American Journal of Occupational Therapy*, 14, 195-198.
- Mitchell, A. M., Sakraida, T. J., Kim, Y., Bullian, L., & Chiappetta, L. (2009). Depression, anxiety and quality of life in suicide survivors: a comparison of close and distant relationships. *Archives of psychiatric nursing*, 23(1), 2-10.
- Parse, R. R. (1987). *Nursing Science. Major paradigms, theories, and critiques*, Philadelphia, PA: W. B. Saunders.
- Parse, R. R. (1992). Human becoming: Parse's theory of nursing. *Nursing Science Quarterly*, 5(1), 35-42.
- Parse, R. R. (2001). The lived experience of contentment: A study using the Parse research method. *Nursing Science Quarterly*, 14(4), 330-338. doi:10.1177/08943180122108481
- Parse, R. R. (2007). The human becoming school of thought in 2050. *Nursing Science Quarterly*, 20(1), 308-311. doi:10.1177/0894318407307160
- Parse, R. R. (2011). The Human becoming Modes of Inquiry Refinements. *Nursing science quarterly*, 24(1), 11-15.
- Roberts, G. W. (1995). Trauma following major disasters: the role of occupational therapist. *British Journal of Occupational Therapy*, 58(5), 204-208.
- Scaffa, M. E., Gerardi, S., Herzberg, G., & McColl, M. A. (2006). The Role of Occupational therapy in disaster preparedness, response and recovery. *American Journal of Occupational Therapy*, 60(6), 642-649.
- Srivastava, A. K., David, M. R., & Ramakrishnan, P. (2006). The disasters in India and occupational therapy response. *The Indian Journal of Occupational Therapy*, 37(3). 66-68.
- Titchener, J. L., & Kapp, F. T. (1976). Family & Character Change at Buffalo Creek.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33(3), 295-299.
- Walsh, F. (2002). Bouncing Forward: Resilience in the Aftermath of September 11. *Family Process*, 41(1), 34-36.
- Walsh, F. (2007). Traumatic Loss and Major Disasters: Strengthening Family and Community Resilience. *Family Process*, 46(2), 207-227.
- Walsh, F., & McGoldrick, M. (2004). *Living beyond loss: Death in the family*. WW Norton & Company.
- Westhorp, P. (2003). Exploring Balance as a Concept in Occupational Science. *Journal of Occupational Science*, 10(2), 99-106.

## Abstract

### Lived Experience of Suffering For Family of Victim with Sewol-ho Ferry Accident: Applied to Parse's Human Becoming Methodology

Kim, Jung-Mi\*, M.Sc., O.T.

\*Dept. of Occupational Therapy, Kwangju Womens University

**Objective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understand Lived Experience of Suffering for family of victim with Sewol-ho ferry accident and to suggest the necessity of mental health occupational therapy regarding of psychological trauma of family of victim.

**Methods :** This study was applied with Parse's Human becoming research method to recognize experience pain for 5 objects losing family with with Sewol-ho ferry accident. According to Parse's research mothod, secondary data, documentary video about experience pain of family of victim with Sewol-ho ferry accident was selected and analyzed.

**Results :** Three core concept for lived experience of suffering of family with victim with Sewol-ho ferry accident as below statements. 1. Despair and sadness losing family, 2. Impotent feeling and guilty conscience breaking down daily life, 3. Seeking relief from suffering for remaining family. Although there were extreme impotent feeling of losing family with Sewol-ho ferry accident, structural conversion presented as process with denial reality which do not want to accept a death in the family and standing for remaining family. The conceptual integration was expressed to powering from valuing and languaging to connection-separation, revealing-concealingl.

**Conclusion :** Family of victim with Sewol-ho ferry accident is losing meaning of life the goal of life with impotent feeling, despair and depression. It is urgently needed for mental health occupational therapy program to restore disruptive everyday activity and participation in community by developing occupational therapy program through meaningful occupation to family of victim.

**Key Words :** Human becoming research methodology, Parse, Psychological suffering, Sewol-ho ferry accident family of victim